

“호남항공청’ 신설하라”... 항공행정 컨트롤타워 시급

‘광주·무안공항’ 부산항공청 관할 지역 특성 맞춘 업무 제공에 한계 골든타임 내 대응체계 구축 필요 지방정부 공항 운영 참여 요구도 “안전 전담인력·인프라 확보돼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항공 행정·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항공청은 총 3곳으로, 서울과 부산, 제주에 위치해 있다.

지방항공청은 관할 공항에서 △항공교통 관제·정보·통신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량·유지정비 △공항보안관리 등 공항 및 항공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부산지방항공청은 김해, 여수, 울산, 대구, 무안, 광주, 포항경주, 사천 등 총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으며, 본부를 김해공항에 두고 나머지 7

개 공항과 1개 비행장에는 출장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방항공청이 관리하는 공항이 국내 공항 15개 중 무려 53%에 달해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은 김포, 양양, 원주, 군산, 청주 등 5개 공항을,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공항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국토부 산하 KAC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으로만 따지면 그 비율은 57%로 더 높아진다. 부산항공청이 각 공항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춘 적절한 항공행정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2021년 광주·무안공항 통합과 흑산도 신공항 건설 등을 앞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던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2021년 당시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었던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광주·전남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지방항공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지방항공청별 사고 및 준사고 현황에 따



장날 맞은 말바우시장 설날을 일주일 앞둔 2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시민들이 생선과 과일 등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78건(사망 39명, 중상 29명), 부산지방항공청은 66건(사망 51명, 중상 20명), 제주지방항공청은 6건(사망 2명, 중상 7명)을 기록하는 등 타 지방항공청 대비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더 심

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비서실장은 “항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남권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항을 독점 운영하는 구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을 다변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尹, 탄핵 심판 또 출석... 공수처 수사는 불응

오늘 현재 4차 변론기일 출석기로 공수처, 구인 실패...향후 절차 논의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는 또 출석한다.

22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23일에

정된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오후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서자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거부하며 당일 늦은 밤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두 차례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자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을 거부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약 6시간 넘게 대기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로 가서 대기했다.

하지만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면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

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조사나 절차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19분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5시간 가까이 머무르며 윤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희망2025 나눔캠페인
광주사랑의열매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사외복지공동모금회
전남사랑의열매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모금회

기부로 나눔을 가지 있게
광주·전남을 가지 있게!

항상 향우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풍채 회장 (주)송죽레저관광 (유)현대관광

골드스텔라 전경, 퀸제누비아II 전경, 산타모니카 전경, 실버클라우드 전경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골드스텔라 (안도↔제주) (금빛 로드를 잇는) 모던 프레스티지 카페리 (간조6년차) 안도출발 09:20/제주출발 16:00
실버클라우드 (안도↔제주) 국내 기술로 건조한, 첫 대형 카페리 1호 (간조5년차)
산타모니카 (진도↔제주) 초 쾌속 카페리
퀸제누비아II (목포↔제주) 최대 최고 초호화 크루즈형 여객선

송죽레저관광 T. 064) 747-8000 F. 064) 747-2590 H. 010-6865-7000 현대관광 T. 061) 245-0091 (목포) F. 061) 245-0309 (목포)